

제목 : 인내와 기도(한나의 기도)

본문 : 삼상 1:1-20

시작찬송가 : 91(새91), 93(새93), 455(새370)

현금찬송가 : 464(새406), 482(새364), 484(새365)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성도들에게 다
가오면, 아무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다 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한 가
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더욱 믿음을 지탱하기 어
렵게 됩니다. 한나도 불임과 그로 인한 브닌나의 조롱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문제 앞에서 감
정적인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한나처럼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께 매
달릴 때, 인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1. 한나는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 ① 한나는 **괴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
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이웃이 비난과 조롱의 계기로 삼을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
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괴로운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삼상 1:6-7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삼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 ②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잠시 동안 기도하고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 두차례, ‘밀저야 본전이니 한번 해본다’ 는 자세
로 짧은 시간 기도 하고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오래 기도'** 해야 합니다.

삼상 1:12(상변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창 32: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③ 한나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
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직전에 포기를 하고 시험에 듭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삼상 1:17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눅 18:6-8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 ④ 한나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도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삼상 1:19-20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
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 ⑤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 하더라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순히 한을 풀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기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삼상 1:11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
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마 26:39(하변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 ⑥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주님과 약속을 지킬 때 주님은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로 말미암
아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삼상 1: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하니라

삼상 2:21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
라니라

오늘의 한마디 :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3월 특별 새벽집회를 위하여.